세계 최고 강도 車강판 개발

기존 강도보다 2배 높이고 두께 33% 줄여

광양제철·현대차 공동…양산 차모델 적용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자동차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세계 최고의 초고강도 자동차용 강판을 공동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강판은 양사가 초기 단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발한 이 강판은 기존 강판보다 강도가 2배에 달해 향후 현대자동차의 안전도 제고와 경량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차는 기존 제품에 비해 강도는 2배로 높이고 두께는 33% 가량 줄인 1천180메가파스칼(Mpa)급 자동차용 강판을 공동 개발했다. 이 강판은 지금까지 세계 최고로 알려진 일본산(980Mpa)보다 200Mpa나 강도가 높다.

1천180Mpa는 1㎜당 최고 12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로, 기존 자동차에는 이의 절반에 불과한 590Mpa급(㎟당 최대 60㎏를 견딤) 도금강판이 사용됐었다.

양사는 세계 최초로 이 1천180Mpa급 도금강판을 대량으로 양산해 현재 생산중인 차모델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강판이 실제 차량에 사용되면 강도가 높아져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는 한편 차량의 경량화로 인해 운행연료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와 현대차는 지난해 초부터 이 강판의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작년말부터는 프레스 가공업체인 신영금속과 함께 TF를 구성해 강종 설계와 충돌특성 평가, 형상설계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포스코는 이 제품 외에도 광양제철소에 준공한 '핫프레스포밍(Hot Press Formimg·열간성형)'라인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최근 국내 완성차 업계에 공급하는 등 첨단 자동차용 강판의 개발과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월 광양제철소 내에 연산 100만개 규모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핫프레스포밍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으며, 자동차용 배기계통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하이드로포밍(Hydroforming) 공장도 증설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하이드로포밍 부품의 양산과 판매를 시작해 GM대우·르노삼성·쌍용·중국 장안기차 등의 자동차 업체에 17만개의 부품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30만개로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2008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을 더 투자해 자동차강판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급 자동차강판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안전과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추세에 맞추기 위해 강판의 개발 초기부터 자동차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양제철-외주협력사 相生 발표회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협회는 최근 광양제철소 대강당에서 CEO 연구회 1차 연구과제 발표회를 열었다.

제철소를 비롯해 두양산전·덕산·포철기연 등 67개 외주파트너사 임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CEO 연구회 발표회에서는 안전, 조직문화, 지역협력 향상 등 등 다양한 실천방안이 논의됐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각 주제별 발표내용에 공감하며, 외주파트너사의 경쟁력 저해요인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의를 펼쳐 외주파트너사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포스코와 상호 윈윈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에너지 체험전 …23~26일 DJ센터서

에너지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06년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오는 23~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체험전은 석탄·광해방지관, 석유관, 가스관, 전력관, 원자력문화관, 지역난방관, 신·재생에너지절약관, 에너지정책관 등을 주제로 산자부를 비롯해 8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에너지 종합 학습·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밖에 에너지 퀴즈대회, 행운의 에너지볼 잡기, 바이오디젤차량 전시회, 에너지 경제관련 전국 웅변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입장료는 무료.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해 복분자 "베리 굿" 지난 2~4일 싱가포르 와인엑스포 'Wine for Asia 2006'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보해 복분자주를 감상하고 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의 복분자주는 이 엑스포에 참가해 진한 맛과 아름다운 빛깔, 동양적인 외형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서희정보기술 산학연 협력 성과 '아파트형 LED 정보시스템' 개발

(주)서희정보기술(대표 서경필)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주관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희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광주대 강문설 교수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수행, 응용 소프트웨어인 'UBS저장장치-SOFTDISK'를 개발했다. 또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 말까지 '아파트형 LED 생활정보시스템(ALLIS)'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서희는 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두 차례의 산학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서희는 프로그램 등록 2건, 실용신안등록 2건과 함께 올 4월 이후 7억원의 매출신장을 이룩했다.

2000년 설립된 (주)서희정보기술(http : //www.iseo-hee.co.kr·광주과기원 창업지원센터)은 응용 소프트웨어, USB 저장장치, LED 전광판, 교육용 소형 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서희는 지난 8월부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에 선정돼 광주대와 '교육용 소형로봇 제작을 위한 통합 시뮬레이션 보드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경기 이달도 부진

중기협 11월 업황 전망

올 하반기에도 광주·전남지역 현장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강영태)가 지역 10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건강도지수(SBHI·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를 조사한 결과, 11월 중소제조업 업황전망에 대한 SBHI는 81.3으로 전월(90.4)보다 9.1P 하락했다.

이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주변국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채산성이 나빠지고 내수부진이 심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는 자금조달전망 SBHI는 83.7로 전월보다 1.0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원자재조달사정 SBHI는 90.9로 전월보다 1.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제조업의 9월 생산설비 가동률은 71.7%로 전월 69.7%보다 2.0%p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은 ▲내수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과당경쟁 ▲원자재값 상승 및 구득난 등이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장성 월평초교 등 어린이 200명이 지난 4일 월평초교 강당에서 용돈관리, 물물교환, 물건사고 영수증 받기 등 경제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용돈관리 등 금융·경제 배웠어요"

농협 '어린이 경제 캠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지난 4일 장성 월평초등학교에서 월평초와 중앙초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캠프를 열었다.

이날 어린이들은 용돈관리, 은행 이용하기, 물물교환 및 협상하기, 재료 구입하기, 물건사고 영수증 받기, 영수증에 나온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부모님 초대하기, 세금납부, 감사편지 작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법인설립하기 등을 체험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농협이 어린이 경제교육 전문 기관과 함께 농촌지역 학교를 방문, 어린이가 금융·경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농촌 어린이들의 경제인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부적·목걸이·팬티·졸음방지 티슈…

유통업계 합격기원 '수능마케팅'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수험생을 겨냥한 각종 '수능 마케팅'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일제히 수능 마케팅에 나서는가 하면 각종 아이디어 상품이 온라인 유통가를 점령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정관장의 홍삼과 함께 수험생들의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은 현미, 조, 수수 등의 곡물로 만든 선식 판매에 나섰다.

또 수험생의 면역력을 높이는 각종 비타민 식품과 함께 '수능팬티' 등의 수능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도 수험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정관장의 '홍삼톤 아이패스'를 10% 할인된 12만6천원에 판매한다. 수험생의 입맛을 되찾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산지한우사골곰탕, 산지한우꼬리반골곰탕, 전복 등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수능 소원 비는 행운의 나무와 함께 '축 합격' 문구를 새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능 마케팅'은 온라인 유통가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옥션은 합격 속옷, 부적, 목걸이, 졸음방지 티슈 등 다양한 이색 상품이 경매에 무더기로 올라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 숙면에 효과적인 참숯과 합격기원 부적이 함께 들어간 '합격 베개'와 함께 합격기원 메시지를 새겨넣은 '수능 합격 팬티' 등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인터파크는 '수능 합격기원 기프트숍' 코너를 마련했다. 이 곳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톡톡튀는 아이디어 상품만을 전시판매 중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